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가장 적절한 웰 다잉은?

요즘 인구에 자주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다. '웰 다잉(Well-dying)'이 바로 그것이다. 굳이 번역하자면 '좋은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이다.

과연 죽음에도 아름답고 좋은 죽음이 있다는 것일까. 흑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한다. 그렇다면 생활학적이나 의학적으로는 이미 사망 상태인데도 연명치료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일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때문에 웰 다잉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립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기틀리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는 극력 반대다. 인위적인 생명처리를 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딜론에도 불구하고 '웰 다잉'이라는 말은 급격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물론 이런 논의 자체가 기분 좋은 것은 아니다. 인생의 종착역인

사망, 이것은 삶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살아온 과정을 모두 마무리 하는 것이란 말이다. 마지막 가는 길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신심이 두터운 신앙인이든지 원기를 크게 성취한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면, 괴테는 임종을 맞이하면서 모인 가족들에게 "빛을 더"라는 단어를 남겼다고 한다. 그래서 누워있는 침대를 그대로 뜨거운 잔디밭으로 밀고 나갔다.

거기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철학자 칸트는 "좋다"라는 말을 남기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떠났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종교인은 아니다. 하지만 자타가 공인하는바 최고의 작가요 철학자였다.

각설하고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웰 다잉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식문화가 개선되어도 건강연령까지 크게 연장되는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70대 후반에 넘어가면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보통이다. 거기에는 가족 해체 등 여러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각종 부정적인 현상도 도출된다.

1인 노인 가구도 늘어가고 있다. 때문에 탄생민족이나 중요한 죽음을 가족을 비롯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치루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부터 노인들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60대 후반부터는 죽음 전 준비교육이 필요하다. 건강 체크도 자주하면서 고독사도 예방해야 한다. 살아온 기간 동안의 삶을 기록하거나 유언장을 미

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불필요한 연장치료 거부 등도 또한 필요하다. 자살예방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로써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4월 현재는 13.8%다. 2018년도인 내년에는 14.3%가 됨으로써 고령사회에 진입될 예정이다. 통계청의 추계치가 그렇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그야 말로 초소프트다. 이 와중에 발생되는 것 중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노인의 자살문제다. 노인 자살시도의 1순위는 본인의 질병(35.9%), 2순위는 우울증(19.6%) 그리고 3순위는 자녀와의 갈등(9.8%)이다.

즉, 노인 자살시도자 3명 중 1명은 본인 질병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노인은 여리모로 상실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경제적 상실, 건강의 상실, 사회적 지위의 상실, 가정 내에서의 역할의 상실, 보람의 상실 등. 이러한 상실의 시대를 잘 감수하지 못하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안게 된다. 그래서 이에 따른 웰 다잉 대처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社說

반려동물 관리 강화해야

유명 한식당 대표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이들 가수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동

물 관리 및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려견 안전사고에 대해 주인에게 책임을 더욱 엄하게 물거나 위험한 맹견을 키울 때는 사육하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앞서 국회에 맹견의 사육·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맹견을 사육장 안에서 기르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맹견관련법'이 2006년과 2012년 각각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반려견 사고는 개의 본성보다는 관리하지 못한 주인의 잘못이 크다. 동물보호법 등 관련법을 충실히 검토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고

이영주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



제대군인 주간을 기념하며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10월 제대군인이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일반 국민들이 제대군인에게 감사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제대군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한다.

'제대군인에게 감사의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는 여섯 번째를 맞는 제대군인 주간은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지정되었다.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한 것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복무 중 본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계급정년으로 인해 부득이 전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평균 전역 연령은 44.6세이며, 그 중 30~40대가 54.7%를 차지하고 있다.

30~40대가 자녀 학비지출 등 가정의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므로 갑작스런 전역에 따른 개인과 한 가정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문제로만 여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제대군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이는 바로 현역군인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국가를 지키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오랫동안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현재 복무중인 군인들의 사기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하루속히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그들이 군에서도 인정받았듯 사회에서도 필요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문제가 서서히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최일선인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특히 취업상담, 교육훈련, 기업협력 등의 분야에서 턱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광주 제대군인 지원센터는 정유년에도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가입이 필수적이며, 처음 가입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컨설팅을 위해 개인별 전문컨설턴트를 배정하여 1:1 맞춤형 진로상담, 경력설계, 직업훈련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제대군인에게는 직업교육훈련비, 전직지원금 등과 같은 구직활동 촉진 장려금을 지급을 통해 구직활동 중 직면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업 등의 채용계획 수립과 각종 잡서점 활동을 통해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채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체 서류전형에 합격한 제대군인의 면접에서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컨설턴트가 면접에 동행하는 동행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는 현역 군인들이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여 국가안보를 틀튼히 할 수 있는 버팀목이다.

이런 버팀목을 틀튼히 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이 사회에 잘 적응해야 현역복무자의 사기를 높이고, 이로 인해 국방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명심하며 이번 제대군인 주간 행사를 통하여 다시 웃는 제대군인을 위해 전국 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勞謙謹勅

勞 聰 謹 勅
 일활 겸손활 삼갈 칙서

▶뜻: 근로하고 겸손하며 삼가고 신칙 하면 중용의 도에 이른다.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경재조
발행·편집인 겸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청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자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양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음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효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5
TogeToge 광산구